

'기도하기를 쉬지마라'

(2020. 3. 1)

[삼상 12:19-25]

노진국 목사

들어가는 말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두고 왕을 구하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임을 알게 하기 위해 사무엘이 비와 우레를 구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리시니 백성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백성들이 제발 죽지 않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에 대한 귀한 교훈을 깨닫고 기도에 더욱 힘쓰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1. 기도는 부탁할 것이 아니라 직접 해야 합니다.

19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자신들이 죽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영원히 기도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기 전에 내가 먼저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 기도는 사명으로 알고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23절을 보면,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율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그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에게는 기도가 율법이 아닌 사명인 것입니다.

3. 기도로 끝내지 말고 삶의 응답이 있어야 합니다.

23-2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려 달라는 기도에 대한 응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의 응답은 그냥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삶이 되고, 삶이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만이 응답이 아니라 선하고 의로운 길을 배우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하게 섬기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가는 말

우리는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기도의 무릎을 더욱 강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사무엘 선지자처럼 기도를 쉬지 않는 기도를 멈추지 않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 섬기시는 분들

시무 목사 노진국
시무 장로 남덕봉 이계도 황장용 홍상범 윤명호
 한수동 황대준 손규수 차영호 이병택
 최남진
원로 장로 황선명 김재철 장순득
은퇴 장로 김형철 백주현 홍성목 이종면 조병선
 박동진 신준호 이경로 김형태 서청길
 홍성석 홍수웅 한병삼 최준호

부목사 감성은
강도사 송진호
전도사 김정희 송진형
교육전도사 이혜선 박미진 박미선
 류승규 박성찬
지휘자 이준영 황선미
오르간 김민지 임윤정
피아노 김미정 신윤혜
사무실 김재만 서은지
미디어 김세윤 이영기
시설관리 문명산 류광일 이재옥



| 파송 선교사

전동운 권영수

| 협력 선교사

김행진 클레멘테 송성무 임창원 최영미

| 찾아오시는 길



버스

신사동고개
 간선(145 148 440)
 지선(4212 4412) 좌석(6800)
 마을(강남08)
 강남을지병원
 간선(147) 마을(강남08)

지하철

(3호선)-신사역 ①번출구
 신사역 1번출구 에서 전방500m
 (7호선)-학동역 ⑦번출구
 학동역 7번출구 에서 전방500m

설교 및 찬양, 교회 소식 : www.iyoungdong.org
 페이스북 : www.facebook.com/youngdong1009



희년을 선포하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 레위기 25:12 -

2020년 3월 15일 (제50권 11호)

주일에배

예배 시작 10분 전부터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주세요.

※ 신양고백	사도신경
찬 송	찬송가 242장(황무지가 장미꽃같이)
기 도	가족 중에서
말 씀	역대하 7:14
헌 금	*헌금은 교회계좌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입금 시, 이름과 헌금항목을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길동 십일조
설 교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노진국 목사
※ 찬 송	찬송가 259장(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 주기도문	다함께

주일 3부 예배 [열린찬양예배] (오후 1:00)

수요일예배

금요일심야기도회

설교영상은 오후 5시부터 보실 수 있습니다.

신양고백	사도신경	신양고백	사도신경
찬송가	220장(사랑하는 주님 앞에)	찬송가	280장(천부여 의지 없어서)
기 도	가족 중에서	기 도	가족 중에서
성경봉독	에베소서 1:1-2	성경봉독	학개 1:3-8
설 교	『에베소에 보낸 편지』 노진국 목사	설 교	『성전을 건축하라』 노진국 목사
찬송가	405장(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찬송가	210장(시온성과 같은 교회)
주기도문	다함께	주기도문	다함께

*교회소식란의 기도제목을 보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회 (새벽 5:30)

날 짜	16일(월)	17일(화)	18일(수)	19일(목)	20일(금)	21일(토)
설 교	'가정예배지'로 제공됩니다.					

예배시간 장소안내

주일에배	장년예배		교회학교				
	1부 09:00	본당	영아부	11:00	영아부실		
2부 11:00	유아부		11:00	유아부실			
열린찬양예배	13:00	본당	유치부	11:00	유치부실		
주일오후예배	15:00		유년부	11:00	유년부실		
수요일예배	19:30	본당	초등부	11:00	초등부실		
금요기도회	20:30		청소년부	11:00	청소년부실		
새벽기도회	05:30	소예배실(B1)	구역 모임	1,3교구 2,4교구	첫째셋째주 둘째넷째주	주일 14:00	정한 장소

1 ※ '코로나19'의 확산과 신천지 이단의 불건전한 활동으로 교회건물을 폐쇄하고 공예배를 가정예배로 전환하는 기간을 4월 4일(토)까지 잠정적으로 연장합니다.

2 나라와 교회를 위한 기도제목

1. 이번 코로나 사태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게 하옵소서
2.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확진자들이 속히 치유되게 하옵소서
3. 이단을 척결해 주시고 이단에 넘어간 성도들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4. 교회가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금 바른 복음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5. 교회가 의로운 삶의 열매를 맺어 무너진 교회의 영적 권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6. 이 일을 통하여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바른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7.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수고하는 의료진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8. 각 가정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경건생활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옵소서
9.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이 잘 흘러가게 하옵소서
10.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3 ● 공지
장례/ 故이재무 성도(이준용 형제 부친)

담당봉사안내

■ 십일조헌금

권영진A 권효숙 이광수 김건수 이해선 김명환 박영란 김미선B 김미정A 김세운 김 영 김윤희 김재관 김경숙B 김정완 김현희 문경구 박동진 백수경 임남규 백주현 궁인순 송진형 안기홍 이경숙A 윤명원 이항근 곽신미 이호현 홍성목 유종희 홍성석 유인균 황대준 최유경 황선명 황장용 신영은

■ 감사헌금

김경열 김미선A 유명현 김미정A 김 영 김영애 김인수 김인순 김재윤 곽순임 김정완 문동근 김복자 백주현 궁인순 서길순 신성심 안기홍 이경숙A 양종규 양준수 양현수 유명래 김금순 유윤희 윤명원 이승명 이예은 이용권 이우진 이해선 장순득 최희숙 한병삼 형남열 탁금란 홍성목 유종희 무명

■ 생일헌금

이승명 이예은 홍성목

■ 구제헌금

김 영 백주현 궁인순 윤명원 최미숙 황대준 최유경

■ 전도헌금

김 영 백주현 궁인순 황대준 최유경

■ 선교헌금

김 영 백주현 궁인순 윤명원 최미숙 홍성목 유종희

■ 북한선교헌금

백주현 궁인순

■ 장학헌금

백주현 궁인순 윤명원 최미숙 황대준 최유경

■ 특별목적헌금

윤명호 이병택 차영호 최남진 한수동 황대준

※ 3월 3일 ~ 9일 교회로 직접 주신 헌금과 계좌로 송금한 헌금내용만 이번 주일 주보에 기재 되었습니다.

■ 교회계좌 | 우리은행 1005-303-337804

예금주 : 대한예수교장로회 영동중앙교회

이름 뒤에 헌금항목 꼭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예) 홍길동 십일조

영동중앙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본당 안내데스크나 지하1층 새가족부에 오셔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